관세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24.(화) 14:30

관세평가분류원, 2026 관세평가 공모전 시상식 및 제43차 관세평가포럼 개최

- 매출액 연동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 등 최신 무역 쟁점 놓고 민·관·학 열띤 토론
-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우수작 총 25편 선정·시상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1월 24일(화) 서울본부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시상식'과 '제43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평가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에서 연구논문 11편 및 판례평석 14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설되었다.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하며 합리적이 관세평가 이론을 정립해 왔으며,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통해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하여 최신 관세평가 실무 쟁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요 발표 및 토론 주제]

① 매출액 연동 권리사용료의 사후귀속이익 해당성 연구 (발제 : 부산대학교 홍채희 / 2026년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작)

② 관세법상 화주 판단과 신고책임의 분리 (발제 : 서울시립대 정인기 / 2026년 판례평석 공모전 대상작)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와 관련한 해석상 논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무역거래 구조 속에서 관세법상 화주 판단과 신고책임의 분리 문제 또한 중요한 실무 쟁점”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연구성과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러한 관세평가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세행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겸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이번 포럼이 학계와 업계, 관세행정 현장 전문가들이 다양한 연구성과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관세평가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관세청도 계속해서 학계·업계 및 관세행정 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관세평가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승연 (042-714-7501)
		담당자	주무관	김현영 (042-714-75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